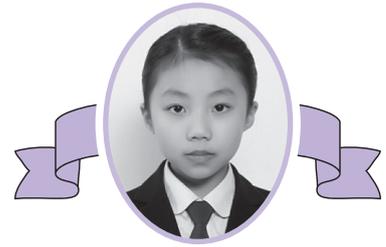


동상





2040년 우리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이도연 | 대구 영신초등학교 6학년

2040년 9월 20일, 오전 7시 30분. 밤처럼 캄캄했던 내 방에 조금씩 햇살이 들어온다. 아침을 열어주는 전동커튼 소리와 20년 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자 빌보드차트 1위로 세계를 열광시켰던 BTS의 '다이너마이트'는 나를 깨워주는 알람 소리이다. 침대 옆에서 '또또'가 웃으며 아침인사를 해준다. 쿠키는 벌써 20살이 훨씬 넘은 할머니 강아지이다. 10년 전의 의술이라면 벌써 하늘의 별이 되었겠지만 10년 동안 엄청난 의술 발달로 강아지의 수명도 사람만큼 길어졌다.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다. '멍멍' 소리만으로도 쿠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작은 모니터가 가슴에 부착되어 있다. 어릴 때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쿠키의 생각을 다 읽을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또또'가 미리 준비해놓은 아침을 먹으며 오늘 일정에 대해 간단한 브리핑을 듣는다. '또또'는 나의 친구이자, 비서이자, 가사 도우미이다. 또 다른 '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나를 많이 도와주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출근을 하기 위해서 현관문을 열면 나의 자동차 봉봉이가 시동이 걸린 채 서있다. 뒷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내가 의자에 앉으면 내 몸에 가장 편하게 세팅이 되며 안전벨트도 자동으로 채워진다. 그리고 서서히 출발한다.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다. 이 차는 자율주행 차량이기 때문에 굳이 누가 운전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 시간에 모자란 잠을 잘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교통체증이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다. 쏟아지는 실시간 교통정보들로 교통혼잡은 없다. 그래서 공기 오염물질들의 농도가 0에 가깝다. 그리고 심각한 미세먼지들로 마스크와 방독면에 의존하던 그때를 ‘라떼는 말이야’ 라며 웃으며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늘은 아주 파랗고 먼지 한 톨 보이지 않는다. 과학의 발달로 미세먼지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잡아주는 훌륭한 시스템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한동안 우리의 폐 건강 위협을 받던 위기의 순간을 멋지게 극복한 것이다. 내가 상상해본 20년 후의 아침모습이다. 그러나 이것은 상상이라기보다 곧 일어날 우리의 미래이다. 이미 과학 발달로 인해 이 모습들은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 몇 년 전에 자율주행 차량의 실제 도로주행이 가능해졌다는 내용의 글을 신문에서 보았다. 그리고 벌써 반자율주행 차량들은 우리의 도로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우리 집 차에도 그런 기능이 있어 아빠가 고속도로에서 편하게 운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아직은 아니지만 몇 년 안에 운전석이 비어있는 차들을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로봇의 발달도 우리의 상상 이상이다. 요즘 드라마의 소재로 인공지능로봇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엄마가 즐겨보는 드라마의 주인공 로봇들은 하나같이 외모면 외모, 지능이면 지능, 체력이면 체력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완벽함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로봇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을 구하고, 사람의 마음도 위로해 주고,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살아간다. 로봇이지만 사람보다 더 사람 같았다. 정말 그런 로봇이 있다면 하나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뿐만 아니라 그 드라마들을 보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인공지능로봇’과 ‘자율주행 차량’,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IT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미래형 첨단도시 ‘스마트시티’의 세상이 열린다면 지금보다 우리의 삶이 아주 편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본다. 물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걱정되지만 우리는 그런 문제들도 슬기롭게 잘 극복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의 미래 모습이 더욱더 기대된다.